

지아의 흥망성쇠 본질 판별하는 '포정천'

예로부터 어른들은 이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길흉이 좌우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때문에 손없는 날에 이사를 해야 하며 살이 낀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게 결사 반대를 했다. 요즘과 같이 고층아파트가 수시로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어른들의 이런 고정관념은 해묵은 고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사를 두고 일일이 따지는 경우가 많다. 이사와 관계있는 정보를 모아보았다. <편집자>

우리나라 이사풍속의 주류를 이루는 사상은 한마디로 복사상(福思想)이라 할 수 있다.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여 잘살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경작지가 좁은 곳에서 가난하게 살아왔기에, 배불리 먹고 양식 걱정없이 사는 것이 제일 큰 욕망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가 풍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의 모든 신조가 풍농을 갈망하는 쪽으로 집약되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사 때에도 천신이나 농신에게 풍농을 비는 민간신앙이 두드러지게 많았던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사갈 집의 방향에 있어서도 '남향 집에 동향 대문'을 제일로 꼽았다. 남향은 음양오행설에서 양기가 가장 충천한 쪽이고, 또 과학적으로 보아도 햇볕이 잘 들어와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기 때문이다. 동향 대문을 바라게 된 것도 동쪽은 음양오행설에서 양의 방향이므로 풍요 다산(豐饒多産)과 다복(多福)이 유입할 것으로 믿은 데 있다.

부엌의 구조까지도 동쪽을 향하되 밥을 푸는 방향은 집 안쪽으로 향하여 퍼서, 복이 집 밖으로 확

산되지 않도록 유의했던 것이다. 이사갈 때에도 복을 쫓지 않기 위해서 못쓰는 물건조차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방을 쓸어내는 것까지도 금기로 여겼던 것이다. 이것은 물신숭배 사상에서 작은 물건까지도 정령이 있어 복을 점지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점술가나 풍수사 혹은 무당에게 문의하여 자기의 운수와 이사갈 집의 방향이나 지세·운세들을 점쳐보고 길한 날을 택하여 이사했다.

이사집을 방문하는 사람들까지도 부정을 멀리하고 복을 부를 수 있는 선물을 마련하여 행운이 가득하기를 축복했으니, 철저하게 벽사초복을 피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이사풍속은 복사상에서 비롯하여 풍농을 기원하는 풍속으로 이어지며, 가택신을 숭상하고 풍수사상·음양오행사상·점복사상에까지 접맥되어 가난의 한이 잘 살아보겠다는 집념으로 변용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사풍속의 배경사상

이사풍속의 배경사상은 주로 풍수지리사상·음양오행사상·점복(占卜) 및 벽사기복의 민간신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풍수지리사상면으로 보면, 예로부터 집터를 정하는 데는 남향에 햇빛이

잘 들고 뒤로는 배산(背山)이 바람을 막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어야 좋고, 또 생활용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적격지라고 했다.

이는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원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풍수지리설에 따라 "산 좋고 물 좋고 토질이 좋으며 햇볕이 잘 들며 음습하지 않은 곳에 집을 지으면 재산이 늘고 자손 대대로 번성할 터"라고 했다. 주택의 풍수사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풍수사상은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기(地氣)의 힘에 의해서 인생의 길흉과 복을 점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신앙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택지의 선정에는 먼저 지기의 왕성한 내맥(來脈)을 잡아야 하며, 좌향(左向)과 문(門)의 위치와 방향을 정한 다음에 터를 고르고 집지을 기초를 닦아야 한다. 이처럼 음양설과 간지(干支)에 맞추어 비로소 양택(陽宅)의 완전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풍수의 이상을 갖춘 곳에 택지를 정하고 집을 지으면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발복해서 가운이 융창하고 사업이 번성하며 부귀영화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풍수적인 법칙을 무시하여서 흉지(凶地)에 집을 지으면, 가운은 쇠퇴하고 자손은 빈곤하거나 몰락하며 재화(災禍)가 그칠 사이가 없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러한 풍수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가옥을 신축할 때에는 풍수를 전문으로 하는 풍수사를 초청해서 위치나 방향을 정하고, 이사할 때에도 택지의 조건과 주인의 사주를 맞추어 보아 결정하는 수도 있다. 이사를 함에 있어 음양오행설에 따라 좋지 않다는 것은 미리 피하고 길하다는 쪽을 택하여 이사하여 재액을 미리 막고자 했다.

음양오행설은 음양설과 오행설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음양설은 우주의 모든 사물은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고 생성소멸이 모두 음양의 이치에 따른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행위가 음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중에
이사풍속만큼 다양했던 것도 드물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사풍속을 이사 전 풍속과
이사 때 풍속, 이사 후의 풍속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사 전 풍속을 살펴보면,
옛 사람들은 먼 곳으로 출타할 때와
이사할 때에는 일진과 방위를
보아 날짜를 정했다.

양설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음양법칙에 따라 행동하면 인생의 길흉화복이나 흥망성쇠를 잘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행설은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다섯가지, 즉 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의 오행으로 나누어, 이 오행의 상호작용과 운용으로 인생의 길흉화복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음양오행설이라는 것은 음양의 성질과 오행의 이치에 따라 방향·일시·일진 등에 따라 모든 일의 길흉이 따른다고 보는 사상으로, 관혼상제(冠婚喪祭)나 이사 등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사를 할 때 점을 쳐보고 이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또 일시·방향 등을 결정하는 수가 많았다. 특히, 이사를 잘못하면 재액이 닥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점복가(占卜家)에게 점을 쳐서 길한 일시·방향·길지를 택했고 좋지 않다면 이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사할 때는 벽사기복의 민간신앙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래서 이사를 하기 전이나 후에는 반드시 가택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사 후 동티가 나면 가신들을 잘못 모셨거나 악귀가 침범한 것이라 보고 무당을 불러 가신을 달래고 축귀를 하고 근신하였다.

잊혀져 가는 이사전의 풍속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중에 이사풍속만큼 다양했던 것도 드물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사풍속을 이사 전 풍속과 이사 때 풍속, 이사 후의 풍속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사 전 풍속을 살펴보면, 옛 사람들은 먼 곳으로 출타할 때와 이사할 때에는 일진(日辰)과 방위(方位)를 보아 날짜를 정했다.

만약에 일진이 나쁜 날에 출타를 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출타나 이사 재액 등의 방위를 맡고 있는 신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살피고, 혹시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미리 그쪽 방위신에게 양해를 빌었다. 날수에 따라 사방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을 옛 사람들은 '손'이라 불렀는데, 손없는 방위와 일진을 보아 길일(吉日)을 택하는 데는 이런 일에 능통한 집안 어른들이나 친지 혹은 이웃사람들에게 의논을 하거나, 지관(地官)이나 점술가(占術家)·무당 등 이런 방면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행했다. 만약에 물어보아서 이사갈 방향에 '손'이 있다거나 액운이 따라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면 이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좋은 날을 택해 이사했다.

옛날 우리 선인들은 그믐날은 그 달의 마지막 날이어서 아무런 액운이 따르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음력으로 윤달은 가외의 달이므로 아무런 재액이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이사 전 풍속'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나이·운수·날짜·일진·방위 등이 맞지 않으면 이사하지 않는다. ▲세살(歲煞)·겁살(劫煞)·재살(災煞) 등 이른바 삼살방위(三煞方位)에 있을 때는 이사가지 않는다. ▲이사갈 때는 반드시 길한 날을 택일하여 간다. 이사 때 풍속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술 안에 요강을 넣어간다.

술안에 요강을 넣어가는 행위는 주술적인 의미

가 크다. 술과 요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 조건을 담당하는 근본적인 기구이니, 생활이 순탄하게 영위되기를 바라는 뜻이라 하겠다. 또, 요강은 오줌을 뜻하는 것인데, 이는 부정(不淨)을 억누르는 주력(呪力)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사를 와서 큰방에 밥술을 먼저 들여놓는다.

밥술은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니 우대했음은 물론이고, 밥술에 가득찬 밥은 풍년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새로 이사를 하면 술 거는 일을 중요시했고, 이것도 길일을 택하여 행했다. 술을 걸고 나면 이사점을 다 옮기지 않아도 이사를 한 것으로 쳤다.

밥그릇에 쌀을 담고 가운데 촛불을 켜서 요강 안에다 넣고 이시간 집의 방 가운데에다 둔다.

쌀은 물론 풍년을 비는 것이고, 촛불은 가운(家運)의 융성을 비는 뜻이다.

이사갈 때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자루를 마지막에 가지고 나오고, 이사와서는 맨 먼저 가지고 들어간다.

소금은 부정을 막는 것이므로 대문간에 뿌려서 부정을 막고자 함이고, 소금자루를 맨 뒤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사 떠나기 전 최후까지 흥액을 막고자 함이다. 또한 이사와서 맨 먼저 들여놓는 것은 새로 이사온 집에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을 먼저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사갈 때 떡을 해서 농 안에 넣어간다.

이것은 역시 풍년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풍년이 들지않고는 떡을 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붉은 팥떡을 해감으로써 농에 함께 붙어올지도 모르는 악귀를 쫓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이사갈 때는 문구멍을 찢어놓고 가거나 방문을 열어놓고 간다.

문구멍을 찢거나 방문을 열어놓고 가는 것은 살

던 집의 복이 찢어놓은 문구멍이나 열어놓은 문을 통해 따라 나와서 함께 가기를 바라는 뜻에서였다. 복이 있어야 잘 산다고 굳게 믿었던 우리 선인들의 사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사갈 때는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꼭 살려서 가져간다.

우리의 선인들은 불을 재산신(財産神)으로 여겨 불씨가 꺼지면 재산이 매달라 집안이 망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불씨를 아주 중요시했다.

이사갈 때에 장롱 밑에다 붉은 색으로 '王'자를 써붙여 간다.

이렇게 하면 악귀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붉은 색을 썼고, '王'자를 쓴 것은 왕건이 가장 큰 권력이므로 귀신도 겁을 먹고 따라오지 않으리라는 착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잊혀져 가는 이사할 때의 풍속

이사하는 날, 이사들어갈 집의 대문·마당·부엌·방·곳간·변소·우물 등에 쌀·보리·밀·콩·팥 등을 함께 볶아서 뿌린다. 이사하는 집에 곡식을 볶아 뿌리는 것은 농사가 주업으로 되어 있는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비는 뜻에서 생긴 주술적인 행위라고 보여진다. 또, 붉은 색은 잡귀를 쫓아내는 주력이 있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사하는 집의 방에다 약썩을 태우거나 이것을 방문이나 대문에 매달기도 한다. 우리 민속에서 썩이 가지는 의미는 그 비중이 크다. 단군신화에서부터 썩은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썩은 독특한 향내가 있으며 약효가 인정되어 약재(藥材)로 쓰일 뿐만 아니라 악귀를 쫓아내는데 효력이 있는 영초(靈草)로 믿었다.

바가지에 물을 떠서 고추·숯·소금을 넣고 이사해온 집의 부엌 바닥에다 둔다. 즉, 바가지·물·고추·숯·소금의 주력을 이용하여 부엌을 정화하고자 함에서였다. 부엌신은 한 가정의 영속

**이사갈 때는 절대로 찬밥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부자집에서야 찬밥을 먹을 리가 없다.

**즉, 찬밥이란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가난의 상징인 찬밥을
새로 이사하는 집에 가지고 가서
가난을 계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가는 부자로 살고 싶다는
소망에서 생긴 풍속이다.**

을 관장하는 만큼 대단히 중요시했으며, 식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그만큼 청결을 요하는 곳이었다.

홍두깨를 이사한 집의 큰방에다 가져다 놓는다. 이는 인간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생명을 영위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렇게 하면 풍년이 든다고 생각했다. 또, 커다란 몽둥이 모양의 홍두깨를 보고 악귀가 침입했다가 겁을 먹고 도망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이사갈 때 못쓰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그냥 두고 온다. 또, 방을 쓸지도 않는다. 이사를 하게 되면 못쓰는 물건이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한 집안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여 온 물건들이다. 이것들에는 눈에 안 보이는 복이 서려 있을지도 모르니, 쓸어 내버림으로써 복을 버리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원시신앙에서 보이는 물신숭배사상(物神崇拜思想)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사하여 들어갈 때는 맨 처음 어른이 먼저 들어간다. 어른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가택신(家宅神)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고, 또, 어른이 먼저 들어감으로써 악귀나 재액을 물리치고, 재액을 당해도 어른이 당해야 하겠기 때문이다. 즉, 어린이를 보호해야겠다는 본능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이사

이사 들어가는 시간은 해가 떠오르는 아침 때가 좋다. 이는 밝은 햇빛이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것과 같이, 집안 형편도 환하게 만사형통하라는 뜻이다. 즉 밝게 비치는 서광을 가운데 번창에 연관시키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사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돈이나 곡식, 배 등을 들고 들어간다. 이것은 새로 이사온 집에 재물을 들고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재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행위이다. 농가에서는 대개 이렇게 하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 것이다.

이사갈 때는 절대로 찬밥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부자집에서야 찬밥을 먹을 리가 없다. 즉, 찬밥이란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가난의 상징인 찬밥을 새로 이사가는 집에 가지고 가서 가난을 계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가서는 부자로 살고 싶다는 소망에서 생긴 풍속이다.

이사갈 때는 식초병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 옛날에는 가정에서 술이나 장·식혜 등을 만들어 먹었는데 잘못하면 쉬어져서 못 먹게 되는 수가 있다. 이들이 쉬는 것은 집안이 망할 징조라 하여 크게 금기로 여겼다. 이사갈 때 식초병을 가져가서 신 것을 퍼뜨리면 안 되겠으므로 아예 불길한 화근이 되는 것은 없애자는 뜻에서였다.

이사갈 때 비는 가지고 가지 않는다. 비는 물건을 쓸어내는 기구이므로 이사할 집의 복을 쓸어내게 될까 싶어 아예 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삼갔다.

이사갈 때에는 맷돌을 가져가지 않는다. 맷돌을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곡식을 부수는 기구이므로 곡식의 파괴는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복(福)까지 파괴할까 싶어 파괴를 연상해서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러나 생활도구를 영영 버릴 수는 없으므로, 이사한 뒤 밤중에 살짝 들여다 놓기도 했다.

이사할 때 그릇이나 거울 등을 깨뜨리지 않는다. 우리 선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에 선행하여 그릇이나 거울 등이 깨지는 것을 대단히 불길한 것으로 생각했다. 즉, 이것은 불행의 징조로 여겼기에 파손이 없도록 아주 조심했다.

집 뒤로 이사가지 않는다. 집을 몰려 앉히지도 않는다. 우리 선인들은 살고 있던 집의 뒤쪽으로 이사하는 것은 가업번성의 퇴보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뒤로 이사가는 것은 금기로 여겼다.

잊혀져 가는 '이사 후 풍속'

이사한 뒤에 팔죽을 끓여서 집안의 여러 곳에 뿌린다. 우리의 풍속에서 동짓날 팔죽을 끓여서 집안에 뿌리거나 이사를 한뒤 팔죽을 뿌리는 일은 모두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이다. 귀신은 붉은색을 무서워하므로 붉은 팔의 주력을 이용하여 이시간 집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악귀를 몰아내고자 함이다. 팔죽의 주력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 문헌인 '형초세시기(荆楚歲時記)'에 그 기록이 있다.

이사한 뒤 떡을 해서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이사가서 붉은 팔을 고물로 한 시루떡을 해먹는데, 이는 붉은 팔의 주력으로 축귀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또, 농경사회에서 풍년을 비는 행위도 되고, 이사온 사람으로서 동네에 인사를 겸한 인정의 나눔이라 할 수 있다.

이사한 뒤 부적(符籙)을 붙이거나 짚으로 제웅을 만들어서 대문에 매단다. 이러한 짓은 나쁜 액운이 닥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정월 보름의 풍속에도 제웅을 만들어 집안의 재액을 떼어 보내는 비방이 있다.

이사간 첫날밤에는 머리를 부엌쪽으로 향해서 잔다. 이것은 한마디로 재액을 면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잠자는 습관은 대개 머리를 부엌의 반대쪽으로 향하여 자는데, 부엌쪽으로 향하여 자는 것은 그만큼 무지몽매한 인간들이니 가택신들께서 너그럽게 보아달라는 의미도 있고, 또 부엌쪽을 향하여 잠으로써 부정을 가시는 행위도 된다고 한다.

이사간 뒤에 가택신을 모신다. 우리 선인들은 새 집에 입주하였을 때나 이사를 갔을 때는 아무런 화액(禍厄)없이 복록을 누리며 살고자 가택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또 이를 신앙적으로 숭배하였다. 가택신에는 성주신·터주신·조왕신·업신

등이 있다.

성주는 한 가정의 최고신으로 가내의 재복(財福)과 길흉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다. 터주는 지신을 말하는데, 특히 택지를 담당하는 신을 터주신이라 한다. 터주신은 자기가 관장하는 가내의 땅을 지키며 잡귀의 침범이나 재앙을 막아주기도 한다. 조왕신은 부엌신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궁이를 관장하는 화신(火神)이기도 하다. 조왕신은 한 가정의 식생활을 담당하는 신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깨끗하게 모신다. 업신의 업은 재산신의 한가지로 구렁이·두꺼비·족제비 등을 업신으로 여긴다. 대개 농가에서는 이러한 업신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부자가 될 징조라 하여 해치거나 내쫓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업신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현대인들의 이사풍속에서도 옛날과 변함이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옛사람들의 불씨존중사상을 이어받아 비록 연탄화로 불이기는 하나 꺼뜨리지 않고 꼭 살려서 옮겨갔다. 이것은 한 가정의 재화(財貨)에 관계있는 것이라 하여 철저히 지켜졌다.

이사집을 방문할 때 사가는 선물도 성냥이나 양초는 예나 다름이 없다. 이것도 불과 관계있는 것으로 불의 정화성(淨化性)과 신성성, 그리고 재화를 지켜주는 재산신(財産神)의 의미가 있으며, 모든 일이 불꽃처럼 잘 이루어지기를 빌어주는 의미도 있다.

그 밖에 현대문명의 발달로 가정생활의 필수품인 비누나 화학세제·치약 등을 많이 사가는 것이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것은 새로 이사간 집의 부정을 가신다는 민간신앙적인 의미도 있으나, 새로 이사한 집이므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할 일이 많을 것이기에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선물로 세제를 사가는 경우도 흔히 있다.

이사하고 나면 친척이나 친지들이 모여 '집들이'라 하여 간단한 잔치를 베푼다. 그리고 지신(地神)을 밭아 액을 없앤다 하여 한 차례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고 놀기도 한다. 그리고 '이사떡'

이라 하여 붉은 팔고물을 문힌 시루떡을 만들어 성주신에게 제사하고 이웃과 나누어 먹기도 하는데, 이는 옛 풍속을 따라 새로 이사온 인사로 이웃과 나누어 먹는 정다운 풍경이라 할 것이다.

이사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

이사할 때는 우선 이사할 집을 선택해야 한다. 집이 흉상이고 방위가 나쁘며 이사 당시 주인의 운세가 쇠약기에 있으면 이사에 대한 피해가 심하다. 집을 고를 때는 '첫인상'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첫인상이 밝고 튼튼해 보이며 아담하고 깨끗하면 자신과 인연이 있다고 보면 된다. 특히 대문을 비롯한 각종 문이 단단하고 찌그러지거나 문틀에 맞지 않으면 좋지 않고 하수구, 하수도, 화장실이 청결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사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사람들은 평소 한 곳에서만 오래 거주한 사람이다. 한 곳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같아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 주변에서 이사할 때 '손없는 날'을 택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손없는 날이란 태백살(太白殺)이 아무데도 없는 날을 말하며 음력으로 10, 19, 20, 29, 30일이다.

이에 따라 1, 2일에는 동쪽에 태백살이 있어 동쪽으로 이사를 가면 안되고, 3, 4일에는 남쪽에 태백살이, 5, 6일에는 서쪽에, 7, 8일에는 북쪽에 태백살이 있으므로 이날에는 그 방향으로 이사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9, 10단위의 날에는 태백살이 하늘로 돌아갔으므로 지상에는 없어 아무 곳으로 이사를 해도 좋다고 한다. 방위별로 이사를 잘하고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 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이런 영향은 일년 안팎으로 하여 나타난다.

북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 : 우선 건강이 좋아지고 사업이 번창

이사

하며 자식복이 있다. 그리고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진다.

잘못했을 때 : 건강(특히 생식기)에 이상이 생기고 주변사람들로 부터 배신을 당한다. 새로운 일을 하면 실패하기 쉽고 빚을 지게 된다.

북동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 : 친척과 가족간에 서로 도와주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막혔던 일이 풀려 재산을 얻게 된다.

잘못했을 때 : 가운이 시들어가고 친척간에 반목하게 된다. 가족들도 불화가 생기고 특히 장자가 제구실을 못한다. 건강도 나빠져 관절관계의 질환에 시달린다.

동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 :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여 주위의 덕을 많이 보게 된다. 말솜씨가 특히 좋아져 매사에 발전적인 징후를 보인다.

잘못했을 때 : 사기를 당하는 수가 생기며 화재나 화상의 피해를 본다. 간장계통의 질환에 걸리기 쉽고 신경통환자는 그 증세가 악화된다.

남동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 : 주변사람들로 부터 신임을 얻어 교제의 폭이 넓어진다. 미혼남자는 혼인하는 일이 생기며 나이든 사람은 부하의 덕을 보게 된다.

잘못했을 때 : 신용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아랫사람들 때문에 난처해진다. 감기가 걸려서 오래가고 위장병에 걸리거나 위장병에 걸린 사람은 악화되기 쉽다.

남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 : 지식을 넓혀 관공서를 상대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어 명예를 얻는다. 결단력이 강해지고 아이디어가 풍부해져 매사에 성공적이다. 혈색이 자연 좋아진다.

잘못했을 때 : 문서나 인감관계의 일로 골치가

아플 수 있고 이별이나 사별하는 수가 생긴다. 명예를 손상할 수 있고 눈병이나 머리, 심장의 질환을 심하게 앓는다.

남서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 : 실업자들이 취직을 하고 재산을 얻게 된다. 겸손한 성격이 길러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진다.

잘못했을 때 : 실업자가 생기고 재산을 잃는다. 비만증이나 내장질환을 앓게 된다.

서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 : 현금이 잘 융통되어 사업이 번창한다. 정력적으로 활동하여 인간관계가 원만하여진다.

잘못했을 때 : 현금거래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본의 아닌 실언과 망언으로 오해와 불신을 당하며 몸에 상해를 입는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북서쪽으로 이사했을 때

잘했을 때 : 독립정신이 강해지고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된다. 부지런해져 실업자인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게 된다.

잘못했을 때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실패를 하며 남들과 의견차이로 다투기를 잘한다. 교통사고등 큰 부상을 당하고 뇌신경에 이상이 생긴다.

이상과 같이 이사가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때와 방위 뿐만 아니라 이사거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가까운 거리로 이사를 하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먼 곳이면 이사 방위의 영향이 크다. **DC**